

해바라기(向日葵, 向日花)의 語源에 대하여

金鍾德¹⁾ · 高炳熙²⁾

The origin of the word of sunflower

Kim Jong Dug · Koh Byung Hee

According to the customary, naming is done after the subject is in existence. But the name "Haebaragi"(Hyangilgyu, Hyangilhwa) has been used as an alias of *Hibiscus manihot* L, long before *Helianthus annuus* L was brought in to Korea, and now the usage of the name has been conversed since then. Since the incorrect record of Gyugwak and Gyuhwa as Haebaragi in 『Chosunesaju n』 (Dictionary of Chosun language) published under Chosunchongdokbu in 1920, the mistake has been carried on and this must be corrected from now on. Incorrect record of hollyhock(Chokgyuwha) as Haebaragi in 『Mong-u』 (1810) took a role in this incorrect trend.

I. 서론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사전류를 살펴보면 向日葵, 向日花, 葵花, 葵心, 葵藿 등을 정확한 고증없이 무조건 해바라기로 번역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의 도입연대에 대하여 서로 주장이 다르다. 이에 본 논문은 해바라기와 向日葵, 向日花란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語源이 물체가 먼저 있는 다음에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상례이나 해바라기, 向日葵, 向日花라는 단어는 미대륙에서 넘어온 해바라기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사용되었던

1) 경희대학교 사상의학과

2)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것을 밝힘으로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전의 내용을 고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단어를 잘못 인식하여 나타난 해석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해바라기, 닥풀, 접시꽃에 대한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이후³⁾ 좀더 발견된 문헌과 재해석에 힘입어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II. 본론

1. 해바라기(向日葵, 向日花)

해바라기를 한문으로는 向日葵, 向日花, 向陽花, 朝陽花, 太陽花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는데,⁴⁾ 이는 해(日)를 향(向)하는 아욱(葵)이나 닥풀(黃蜀葵)의 꽃(花)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지어진 단어이다. 해바라기란 한글의 의미도 ‘해(日)를 바라는(向) 식물(기)’이라는 뜻으로 向日葵 또는 向日花를 우리말로 번역한 언어기호로 볼 수 있다.⁵⁾ 또한 영어로도 해(sun)와 같은 꽃(flower)이라는 뜻으로 sunflower라 하니 동서양이 해바라기의 품성에 대하여서는 비슷한 인식을 하였다.

지석영(池錫永, 1855~1935)은 『字典釋要』(1909)에서 규(葵)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아욱의 뜻과 해바라기(向日花)의 의미가 같이 있다고 하였다.⁶⁾ 여기에 나오는 해바라기는 지금의 해바라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字典釋要』의 부록에 나오는 그림을 통하여 한눈에 지금의 해바라기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현재 중국에서도 向日葵를 해바라기로 보고 있다.(그림 2 참조)

3) 金鍾德, 「아욱(葵菜),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에 대한 문헌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1999.

4) 韓振乾, 『漢朝植物名稱詞典』, 「向日葵」, 해바라기 向陽花, 朝陽花<山東>, 葵花<通稱>, 太陽花<四川> 照日葵, 日照葵<山西>, 向日花, 葵, 日輪草, 轉子連, 日回<日本> Helianthus annuus L

5) 李秉根, 「해바라기(向日花)의 語彙史」, 『冠嶽語文研究』, 22輯,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6) 池錫永, 『字典釋要』, 「葵」, 菜名 아욱 규. 向日花 해바라기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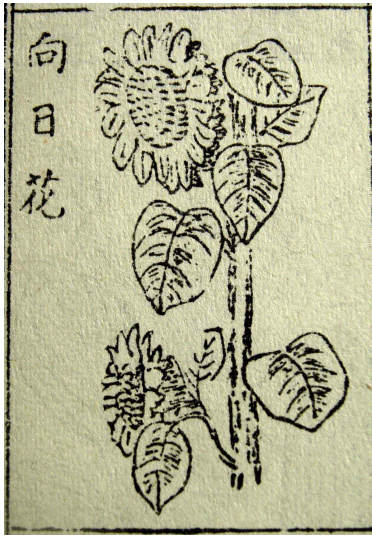


그림 1 向日花<字典釋要>



그림 2 向日葵<中藥大辭典>

1. 해바라기의 유래

북미 온대지역이 원산지인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 L)는 5000년 전부터 Arizona 와 New Mexco 등의 지역에서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바라기가 미대 륙 재발견이후 스페인사람들에 의해 1510년 유럽에 화초용으로 처음으로 전해졌다. 중국으로의 도입은 그 이후로 추정되는데, 현존하는 문헌 중 중국최초의 해바라기에 대한 문헌은 『廣羣芳譜』(1708)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해바라기를 서쪽 오랑캐 땅(西番)에서 들어왔는데 접시꽃(蜀葵)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서번규(西番葵)라 명명 하면서 ‘줄기는 대나무와 같으며 어른 키(一丈)보다 크다. 잎은 접시꽃과 비슷하지만 크고 꽃받침은 연꽃과 비슷하지만 편평하며 2~3尺정도이다. 꽃은 황색이며 씨는 피 마자와 비슷하지만 편평하다. 임신부는 하초(下焦)를 가볍게 하여 낙태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⁷⁾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해바라기가 도입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00년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바라기에 대한 그림이 최초로 실린 것은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는 『字典釋要』(1909)로 보아야 한다.

2. 닥풀(黃蜀葵)

7) 劉灝, 『佩文齋廣羣芳譜』, 「西番葵」, 西番葵 莖如竹 高丈餘 葉似蜀葵而大 花托圓二三 尺如蓮房而扁 花黃色 子如葶藶子而扁 孕婦忌 輕其下 能墮胎.

黃蜀葵는 <표 1>에서 보이듯이 黃蜀葵花, 側金盞花, 黃蜀花, 黃葵花, 黃葵, 秋葵, 衛足葵 등의 異名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꽃이 아침에 피서 저녁에 지기 때문에 일일화(日日花, 一日花), 해를 향하는 向日성이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히블아기, 히브라기, 히바라기, 히바리기)로 불려졌고, 현재는 닥풀(*Hibiscus manihot* L)로 불려지고 있다.

닥풀(黃蜀葵)은 접시꽃(蜀葵)과 비슷하여 접시꽃중의 하나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다.⁸⁾ 따라서 『本草綱目』(1590)에서는 닥풀에 대하여 ‘잎 크기는 蓖麻葉과 비슷하고 짙은 녹색이다. 5갈래의 分岐가 있으며 6월에 주발(椀)만한 꽃이 피는데 鶯黃色이며 6개의 편편한 꽃잎이 있다. 아침에 꽃이 피고 점심에 수그러들며 저녁에 떨어지니 側金盞花이라 부르기도 한다. 깎지는 엄지손가락같이 크며 2寸정도이다. 중심은 크고 끝은 예리한데 6개의 모서리에 털이 있으며 오래되면 黑色으로 된다. 모서리가 터지면 안에 6개의 방이 있는데 참깨와 비슷하다. 열매는 蓖麻子와 같으며 흑색이다. 줄기는 6~7尺에 달한다.’⁹⁾라 설명하고 있다.

닥풀은 뿌리에 약 16%의 점액질을 지니고 있어 韓紙를 만드는데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韓紙(조선종이)는 닥나무(楮)나 삼지닥나무(三枝楮) 껍질을 삶아 內皮부분만 가려낸 다음 끈적거리는 닥풀뿌리즙을 섞으면 紙液이 되어 종이가 된다. 또한 닥풀의 줄기껍질을 얇게 벗겨 노끈을 만들 수 있으며, 닥풀의 씨는 노란색의 염료로 사용하며, 닥풀꽃은 石淋과 難産을 치료할 수 있다.¹⁰⁾

8) 李時珍, 『本草綱目』, 「黃蜀葵」, 宗爽曰 黃蜀葵與蜀葵別種 非是蜀葵中黃者也.

9) 李時珍, 『本草綱目』, 「黃蜀葵」, 葉大如蓖麻葉 深綠色 開岐了 有五尖如人爪形 旁有小尖 六月開花大如椀 鶯黃色 紫心六瓣而側 且開午收暮落 人亦呼爲側金盞花 隨即結角大如拇指 長二寸許 本大末尖六稜有毛 老則黑色 其稜自綻 內有六房如芝麻房 其子累累在房內狀如蓖麻子色黑 其莖長者六七尺.

10) 張志淵, 『菜蔬栽培全書』, 「黃蜀葵」, 其莖이 長者六七尺이니 剝皮可作繩이오 子可染黃이며 花治石淋難産호니라.

	닥풀(<i>Hibiscus manihot</i> L)	해바라기(<i>Helianthus annuus</i> L)
證類本草(1108)(宋)	黃蜀葵	
鄉藥採取月令(1431)	黃蜀葵花(卽黃蜀花 又名一日花)	
鄉藥集成方(1433)	黃蜀葵花(卽黃葵花 又名一日花)	
本草綱目(1590)(明)	黃蜀葵(側金盞花)	
東醫寶鑑(1613)	黃蜀葵花 일일화	
簡易集(1631)	向日花	
廣羣芳譜(1708)(淸)	秋葵(側金盞, 黃葵, 黃蜀葵)	西番葵
本史(1787)	黃蜀葵 俗名一日花(側金盞花)	
靑莊館全書(1795)	黃葵 히날아기 (黃蜀葵, 秋葵, 向日葵)	
物譜(1802)	向日蓮 히바라기 ???	
蒙諭(1810)	蜀葵花 히바라기(向日花) ???	
林園經濟志(1827)	秋葵(側金盞)	
物名考(1830)	黃蜀葵 일일화(日日花, 側金盞, 衛足葵)	
廣才物譜(미상)	黃蜀葵 히바라기 (黃葵, 向日花, 側金盞花)	
松南雜識(1855)	向日花(唐向日花)	
字類註釋(1856)	葵 히발아기 규 ???	
良方金丹(미상)	黃蜀葵花 일일화	
字典釋要(1909)		葵 해바라기 규(向日花)
菜蔬栽培全書(1909)	黃蜀葵 히바라기(向日花, 側金盞花)	
農政新篇(1905)	玉芻(向日花)	
朝鮮語辭典(1949)		해바라기(葵藿. 葵花. 向日花)
辭源(1993)(中)	黃蜀葵	向日葵

<표 10> 닥풀(黃蜀葵)과 해바라기(向日葵)에 대한 문헌

3.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문헌조사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과 도입된 이후의 문헌을 살펴봄으로서 해바라기, 向日花, 向日葵가 닥풀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가 해바라기가 도입됨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3. 1.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전에도 向日花라는 단어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 해바라기(向日花)가 도입된 연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보통 180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향일화(向日花)가 해바라기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전에도 이미 向日花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최립(崔崝, 1539~1612)은 자신의 문집에서 向日花란 시제로 ‘닥풀(葵)이 해를 향할 줄 앞서어

또한 특별하도다. 반드시 밝은 빛이 너를 위해 도는 것은 아닐진대. 발에는 군신을 감동시킬 대의(大義)가 있으니. 한줄기 취해 흰머리에 꽃을만 하네,¹¹⁾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향일화(向日花)는 닥풀을 의미하고 있다.

조재삼(趙在三, 1808~1866)의 『松南雜識』(1855)에 중국에서 수입된 향일화(向日花)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꽃은 송화색(松花色), 잎은 초록색(草綠色)의 염료가 되고, 씨는 끓이면 검향색(黔香色), 오배자(五倍子)를 넣으면 당홍색(唐紅色)과 검금색(黔金色), 불에 달군 백반(白礬)과 식초를 넣으면 자주색(紫紬色) 궁초색(宮綃色) 황가색(黃叚色) 아청색(雅靑色)이 된다. 또한 마도지(磨刀砥)의 찌꺼기에 넣으면 회색(灰色)과 우색(雨色)이 되는데 사람의 소변을 넣으면 목염옥색(木鹽玉色)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미(己未)년 9월에 괴질이 돌았는데 괴질의 원인이 이 꽃이라는 소문이 있어 向日花를 다 뽑아버리니 염색하는 집에서 팔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向日花의 씨에는 독성이 있는데, 씨를 먹은 닭을 사람이 바로 잡아먹으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독한 것이라고 하였다.¹²⁾

趙在三이 언급한 向日花는 지금의 해바라기가 아닌 닥풀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닥풀에서 염료를 추출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의 씨는 독성이 없어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대륙이 재발견되기 훨씬 이전의 기록인 좌전(左傳)과 조식(曹植)의 글을 인용하여 向日花를 설명하고 있어, 여기에서 말한 向日花가 닥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安宗洙는 일본농학계와 접촉하여 서양농법을 정리한 『農政新篇』(1905)을 펴냈다. 여기에 나오는 向日花는 염료로 사용하고 있는 玉芻와 같으며 秋分절기 맑은 날에 채취하지 않고 비가 오는 날에 채취하면 노란색을 얻을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¹³⁾ 염료로 사용하는 向日花가 지금의

11) 崔岙, 『簡易集』, 「向日花」, 葵知向日亦殊哉 不必暉光爲爾回 足感君臣大義在 白頭猶取一枝栽.

12) 趙在三, 『松南雜識』, 「向日花」, 左傳曰 鮑莊子之智 不如葵 葵猶能衛其足 曹植曰 葵藿之傾葉 太陽雖不回光 然向之者誠也 註向日不令照根 猶葛藟之庇根也 近有一種自中朝來 謂唐向日花. 其花染爲松花色 其葉染爲草綠色 其子煎染爲黔香色 入五倍子爲唐紅色 黔金爲兩色 煨(문맥상 교정)白礬和醋爲紫紬色 唐青花本爲宮綃色 常青花本爲黃叚色 緊煮多入白礬爲雅靑色 入磨刀砥滓爲灰色雨色 叚染後入人尿爲木鹽玉色 及己未九月 怪疾訛爲此花之由 皆拔去 似染家不售故也 其子鷄食而 人食其鷄則死 云毒亦酷.

13) 安宗洙, 『農政新篇』, 「玉芻」, 玉芻亦染料 我國所稱向日花也 擇肥田以人馬糞培耕 春

해바라기를 지칭하는 지는 좀더 연구를 해야겠으나 해바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農學新書』(1909)에서 『農政新篇』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9월에 向日花 종자를 채취하여 다음 해에 심는다. 노란색의 염료지만 혼합하여 靑玄色을 낼 수 있다. 줄기를 잘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노란 즙이 나오고 소금물을 넣으면 색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보충설명¹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2.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전에도 向日葵가 있었다.

현재 향일규(向日葵)는 해바라기를 지칭하고 있으나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향일규(向日葵)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홍도(河弘度, 1593~1666)의 문집에서 향일규(向日葵)란 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닥풀(黃蜀葵)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옛날에 듣기를 堯莢(堯임금 때 조정의 뜰에 난 상서로운 풀)이 요임금의 계단에 생겼는데 잎이 일월과 똑같이 피고 지었다네. 순박한 풍속은 이미 멀어지고 뿌리도 말랐는데 아름다운 혼이 변하여 뜰 앞의 닥풀이 되었구나. (中略) 아침이면 밝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여 금띠를 구부리고 저녁에는 지는 풍경에 화려한 비녀 드리우네. 햇빛 고운 곳엔 꽃 빛도 곱고 햇빛 옮겨갈 때 꽃 그림자도 옮겨간다. 이제야 사물의 본성은 진실로 뺏을 수 없음과 구만리 위로 응(應)하여 오래도록 따름을 알겠도다. 단심(丹心) 기울이나 해는 더욱 높아지니 해를 향한 작은 정성 하늘이 어찌 알겠는가. 북쪽에 옮겨 심어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구름에 기대고 이슬에 조화로울 때가 언제런가. (中略) 충심은 해를 사랑하여 게으르지 않고 지혜는 발을 보호하여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다. 포장(鮑莊)이 폼하될 줄 진실로 알지 못하였고 적선(謫仙)이 시를 지으니 참으로 슬프도다. 바라건데 바닷가에 해를 받드는 충심이 있으며 풀 중에 닥풀이 있고 사람 중에 기약하는 이 있음을 보소서.’¹⁵⁾라 하였

分後分根植之 時洗藥汁 秋分時晴日刈採 若雨中刈採 則雖煎之又煎 必無黃色 凡草木之採葉者 皆宜晴採 若雨(문맥상 교정)採則功能甚薄.

14) 張志淵, 『農學新書』, 「玉菊」, 玉菊亦染料 我國所稱向日花也 擇肥田以人馬糞培耕 春分後分根植之 時洗藥汁 秋分時晴日刈採 若雨中刈採 則雖煎之又煎 必無黃色 凡草木之採葉者 皆宜晴採 若雨採則功能甚薄. 一名???오 亦曰?萸니 九月에 取其熟穗호야 以爲翌年種子니 黃色의 染料니 或混和호야 用於染靑玄며 亦供藥用立?니 刈其莖曝乾後細剉호야 以熱湯으로 注之호야 浸出黃汁호고 更加鹽汁이면 其色鮮明호니라.(판독이 불가능한 것은 ?로 처리함)

15) 河弘度, 『謙齋集』, 「向日葵」, 昔聞堯莢生堯階 葉與日月同榮萎 淳風已遠根亦枯 芳魂

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向日葵는 해바라기가 아닌 닥풀로 보아야 할 것이다. 趙憲(1544~1592)의 『重峰集』에 나오는 ‘向日葵賦’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¹⁶⁾

3. 3.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해바라기’가 닥풀을 의미하였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靑莊館全書』(1795)는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국역본이 나와있다. 여기에서 ‘葵花之傾日 品種之偏也’를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기우러지는 것은 품종이 편벽된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여기에 나오는 규화(葵花)는 해바라기가 아닌 닥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화분에 심은 닥풀은 아침에 동쪽, 한낮에는 바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기우러지는데, 동쪽에 기운 닥풀을 서쪽으로 화분을 돌려놓았더니 곧 늘어져 죽었다라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이다.¹⁷⁾ 이는 번역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덕무가 말한 히불아기는 지금의 해바라기가 아닌 황규(黃葵), 황촉규(黃蜀葵), 추규(秋葵), 향일규(向日葵)로 불리는 닥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⁸⁾ 이덕무가 말한 ‘히불아기’에 대하여 ‘내가 어렸을 때에 히불아기(黃葵)를 화분에 심었더니 줄기는 마(麻)같고 잎은 패모같았다. 줄기 끝에 노란 꽃이 피었는데 가운데가 조밥같고 곱지는 않았다. 해를 따라 동서로 움직이는데 목이 굽어 담뱃대 같았고 한낮에는 위를 향하였다. 내가 시험삼아 동쪽을 향하기를 기다렸다가 화분을 돌려 서쪽으로 향하도록 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어 죽었다. 이와 같이 물체(物)의 본성(本性)은 빼앗기 어려운 것이다.’¹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닥풀을 묘사하는

化爲庭前葵 (中略) 朝迎晴旭金帶屈 夕望落景華簪垂 日色鮮虞花色鮮 日影移時花影移 乃知物性固莫奪 上應九萬長相隨 丹心傾盡日愈高 向日微忱天豈知 移栽北辰不可得 倚雲和露將何時 (中略) 忠能愛日心不怠 智能衛足身不危 鮑莊見貶固不知 謫仙題詩良足悲 請看崖海奉日忠 草有葵花人有期.

16) 趙憲, 『重峰集』, 「向日葵賦」, (前略) 忠君之一念兮 與葵懇其愛日.

17) 李德懋, 『靑莊館全書』, 「耳目口心書」, 鳥之飛也 必先南而後定之 虱之行也 必先北而後定之 各從其陰陽之氣也 葵花之傾日 品種之偏也 余種于盆 觀其每日 朝東午正夕西 無一差 方其東也 移盆使西之 少間低垂而死 噫余使葵失節 而葵守節而死也.

18) 李德懋, 『靑莊館全書』, 「葵」, 余兒時種黃葵 俗名히불아기于盆 莖如麻 葉如茜 莖端開黃花 心如粟飯 不甚鮮艷 隨日東西 而項曲如烟盃 正午則昂 余試俟其向東 移盆向西 食傾萎死 物性之難奪如此.

19) 李德懋, 『靑莊館全書』, 「葵」, 蓋向日者黃葵 一名黃蜀葵 亦名秋葵 說文黃葵 常傾葉向日 不令照其根 王禎農書 葵陽草也 注天有十日 葵與終始 故葵從葵 若此說 則葵字

것이다.

1800년대 중반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廣才物譜』에도 ‘히바라기’가 나오는데, ‘잎은 곧마엽(莧麻葉)같이 크고 줄기는 6~7척(尺)이며 꽃은 주발(椀)크기이며 아황색(鵝黃色)이다. 6개의 편편한 꽃잎이 있으며 아침에 꽃이 피고 점심에 수그러들며 저녁에 떨어진다. 열매는 맹마자(菹麻子)와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닥풀(黃蜀葵, 黃葵, 向日花, 側金盞花)과 동일하다고 하고 있다.²⁰⁾ 즉 여기에 나오는 ‘히바라기’는 『本草綱目』(1590)에서의 닥풀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의 해바라기로는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닥풀로 보아야 한다.

정윤용(鄭允容, 1792~1865)의 『字類註釋』(1856)에 규(葵)를 설명하면서 ‘아욱’과 ‘히발아기’가 나온다.²¹⁾ 여기에서의 규(葵)는 아욱을 의미하는 경우와 닥풀을 의미하는 경우 2가지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本草綱目』에서 아욱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²²⁾, 닥풀을 설명하던 『左傳』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최소한 『字類註釋』에 나오는 ‘히발아기’가 지금의 해바라기가 아님은 확실하다.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의 『菜蔬栽培全書』(1909)에서도 ‘히바라기’가 나오고 이를 향일화(向日花)라 하였지만²⁴⁾ 설명내용을 보면 닥풀(黃蜀葵)을 의미하고 있으며

專爲向日葵而設也 然曹植曰 若葵藿之傾葉 太陽雖不爲之迴光 然終向之者誠也 說文又有傾葉之文 而不言花之傾日 何也 或他葵傾葉而余未之覺歟.

20) 『廣才物譜』, 「黃蜀葵」, 히바라기. 葉大如莧麻葉 莖長六七尺 花大如椀 鵝黃色 六瓣而側 朝開午收暮落 子如菹麻子. 黃葵. 向日花. 側金盞花.

21) 鄭允容, 『字類註釋』, 「葵」, 아욱 규 陽草 百菜之主 四時之饌 又히발아기 규 傾葉向日 不照其根 能衛足 又終葵圭上葵首也.

22) 李時珍, 『本草綱目』, 「葵」, 葵葉傾日 不使照其根 乃智以揆之也.

23) 柳僖, 『物名考』, 「黃蜀葵」, 非蜀葵之黃者也 大莖大葉如梧 初生大花如椀 未開 朝東暮西傾之. 일일화. 日日花 側金盞 衛足葵. 左傳所謂葵能衛足者 多以向日解之 然恐指露葵能承露 以自漑其根者也.

24) 張志淵, 『菜蔬栽培全書』, 「黃蜀葵」, 俗名(히바라기)니 卽向日花也라 苗葉이 似蜀葵而葉이 尖狹多刻缺하고 又似莧麻葉호야 深綠色이오 開岐有五尖을 如人爪形호고 旁有小尖호며 六月에 開花大如椀이오 鵝黃色이오 紫心六瓣而側호야 朝開午收호니 亦呼爲側金盞花라호며 隨即結角이 大如拇指호야 長二寸許오 本大末尖호며 六稜有毛호고 老則黑色이오 其稜이 自綻호야 內有六房이 如芝麻房호고 其子는 累累在房內를 如菹麻子오 其莖이 長者六七尺이니 剝皮可作繩이오 子可染黃이며 花治石淋難産호니라.

『本草綱目』(1590)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向日性이 있는 닥풀을 해바라기(向日葵)로 호칭하였다가 미대륙에서 수입된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 L)를 해바라기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처음에 해바라기는 닥풀(黃蜀葵)을 지칭하는 단어였으나 지금의 해바라기가 도입된 이후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3. 4. 向日蓮은 해바라기일까 닥풀일까?

『物譜』(1802)는 1770년경 이가환(李嘉煥, 1681~1763)이 쓰고, 그 아들 이재위(李載威, 1755~1825)가 체계적으로 엮은 책이다. 여기에서 향일련(向日蓮)은 ‘히브라기’라고 하였는데²⁵⁾,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닥풀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지금의 해바라기를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닥풀(黃蜀葵)이 아침에 꽃이 피고 점심에 수그러들며 저녁에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꽃이 떨어지면 다른 꽃이 계속(連) 피기 때문에 여기에선 말한 향일련(向日蓮)은 지금의 해바라기보다는 닥풀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物譜』가 출간될 당시 이미 지금의 해바라기가 도입되어 해바라기를 보고 사용된 단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에 해바라기가 소개된 『廣羣芳譜』가 1708년에 출간된 것을 감안하면 이가환 생존시인 170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 나라에 해바라기가 도입되었고, 이를 본 이가환이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 5. 蜀葵花를 해바라기로 잘못 표기도 하였다.

장혼(張混, 1759~1828)의 『蒙諭』(1810)에서도 ‘히바라기’는 접시꽃(蜀葵花), 향일화(向日葵)라고만 하고 있어²⁶⁾ 더욱 용어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다. 명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기에서 말한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蒙諭』이전의 문헌에서 접시꽃(蜀葵花)을 해바라기로 표현한 적이 없고, 미대륙에서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문헌에서 이미 닥풀(黃蜀葵)을 向日花, ‘히브라기, 히브라기’라고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장혼(張混)이 黃蜀葵花(닥풀)를 蜀葵화로 잘못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蒙諭』(1810)에서 접시꽃(蜀葵花)을 해바라기로 잘못 보았기 때문에 후대의 사전류에서 葵花, 蜀葵화를 해바라기로 잘못 인식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²⁷⁾

25) 李載威, 『物譜』, 「花卉」, 向日蓮 히브라기

26) 張混, 『蒙諭』, 「草木」, 蜀葵花 히바라기 向日花

4. 해바라기에 대한 잘못된 기록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字典釋要』(1909)에 해바라기가 그림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한일합방이후 최초의 국어사전이라 할 수 있는 『朝鮮語辭典』(1920)이 편찬될 당시에는 이미 해바라기가 널리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전이 편찬되면서 예전에 닥풀(黃蜀葵, 向日花, 葵藿)을 해바라기로 표현했던 관행의 실수만이 아니라,²⁸⁾ 접시꽃인 규화(葵花)를 해바라기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²⁹⁾

해방이후 출간된 『朝鮮語辭典』(1949)에서는 해바라기에 대하여 ‘잎은 둥근데 끝이 뾰죽하고 깔깔한 잔털이 있고 꽃은 황색으로 크게 피는데 늘 해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화초.’³⁰⁾라고 설명하여 지금의 해바라기임을 알 수 있으나, 닥풀(葵藿)과 접시꽃(葵花)도 해바라기라고 서술하고 있어³¹⁾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朝鮮語辭典』(1920)의 오류를 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답습하고 있어 후대의 학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4. 1. 해바라기로 번역하는 ‘葵藿’은 닥풀과 콩

현재 대부분의 사전에서 규곽(葵藿)을 ‘해바라기’ 또는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하여 기운다는 뜻으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공경함’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있으나³²⁾ 이는

27) 최광열, 『꽃사전』, 서문당, 1993.

28)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向日花(향일화)」, 해바라기

「葵藿(규곽)」, 해바라기

29)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葵花(규화)」, 해바라기

「해바라기」, 日向葵. (葵藿, 葵花, 向日花)

30) 문세영, 『朝鮮語辭典』, 「해바라기」, 菊科에 붙은 栽培草. 잎은 둥근데 끝이 뾰죽하고 깔깔한 잔털이 있고 꽃은 황색으로 크게 피는데 늘 해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화초. 葵藿. 葵花. 向日花.

31) 문세영, 『朝鮮語辭典』, 「규화」, 葵花 해바라기

「규곽」, 葵藿 해바라기

「향일화」, 向日花 해바라기

32)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1920.

東亞出版社辭書部, 『新撰 國語大辭典』, 東亞出版社, 1963.

吳漢根, 『新字源』, 崇文社, 1967.

신기철,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1975.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닥풀과 콩잎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은 자신의 문집에서 向日葵花라는 시제로 ‘닥풀과 콩잎의 이름은 비록 다르나 해를 따라 기우는 성질은 똑같네. 모습은 속된 분위기가 없고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의미가 있네. 꿈틀 꿈틀 참된 본성 보내고 정신이 혼미하니 본성이 어두워지네. 하늘이 부여해준 뜻이 이 꽃에 딱 들어맞네.’³³⁾라 하고있다. 이 문장에 ‘葵藿名雖異’가 나오는데, 만약 규곽(葵藿)을 하나의 식물로 본다면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葵(닥풀)과 藿(콩)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서도 葵藿을 하나의 식물이 아닌 서로 다른 식물로 인식하여 葵藿(葵藿)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모두 식물의 천한 것이다.(皆植物之賤者)’라 하였다. 葵藿(葵藿)을 하나의 식물로 보았다면 모두(皆)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葵(葵)와 藿(藿)을 분리하여 보아야한다. 또한 콩잎(藿)은 향일성(向日性)은 없지만 문맥상 넣은 것이다라는 보충설명이 있어³⁴⁾ 葵藿이 해바라기가 아님은 확실하다.

4. 2. 『詩經』에 나오는 葵는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이다.

일부 한문사전에서 『詩經』에 나오는 葵(葵)³⁵⁾를 해바라기로 보고 있으나³⁶⁾ 이는 아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詩經』의 주자주(朱子註)에 이미 葵(葵)는 채소의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고, 정학상(丁學祥, ?~1859)의 『詩名多識』(1850)에서도 葵(葵)를 『本草綱目』과 동일하게 아욱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⁷⁾ 또한 잎을 삶아먹을 수 있는 것은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79. 1997.

『대국어사전』, 현문사, 1985.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1988.

東亞出版社編輯局, 『동아 漢韓辭典』, 東亞出版社, 1992.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1993.

33) 金守溫, 『拭疣集』, 「向日葵花」, 葵藿名雖異 傾陽性則同 物無諧俗韻 義有事君忠 蠢蠢速眞性 昏昏昧降衷 天工賦與意 的端此花中.

34) 賈傳棠, 『辭源』, 中州古籍出版社, 1993, 「葵藿」, 皆植物之賤者 下對上之詞 恆用之以自此 曹植上疏求存問親戚 因致其意曰 若葵藿之傾葉 太陽雖不爲之回光 然向之者誠也. 見三國志. 按藿無向陽之性 特連類而及之詞也.

35) 『詩經』, 「邠風 <七月>」, 七月亨葵及菽.

3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79, 1997.

37) 丁學祥, 『詩名多識』, 「葵」, 朱子曰 葵菜名. 本草曰 葵一名滑菜 一名露葵 一名衛足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4. 3. 葵花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접시꽃이다.

대부분의 사전류에서 규화(葵花)를 접시꽃이 아닌 해바라기 또는 해바라기의 꽃으로 잘못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³⁸⁾ 규화(葵花)는 접시꽃(蜀葵, 측규화)의 이명(異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시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가장 최근에 나왔으며 고증이 정확하다고 알려진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접시꽃문양의 규화잠(葵花簪)을 해바라기의 꽃모양으로 잘못 보고 있으며,³⁹⁾ 접시꽃 무늬의 규화잔(葵花盞)을 해바라기 꽃무늬가 있는 잔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다.⁴⁰⁾ 하지만 일부 사전류에서 규화(葵花)를 접시꽃으로도 볼 수

傾日不使照其根 大葉小花 花紫黃色 其最小者名鴨脚葵 其實大如指頂 皮薄而扁 實內子輕虛如榆莢仁 四五月種者可留子 六七月種者爲秋葵 八九月種者爲冬葵 經年收採正月復種者爲春葵 然宿根至春亦生.

38) 문세영,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1949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1961.

東亞出版社辭書部, 『新撰國語大辭典』, 東亞出版社, 1963.

弘字出版社編輯部, 『國漢最新大字源』, 弘字出版社, 1968.

新韓出版社辭書部, 『새국어대사전』, 新韓出版社, 1972.

學英社編輯部, 『新字典』, 學英社, 1973.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표준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88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1992.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7.

千龍淑, 『活用玉篇』, 現代中國學術研究, 1999.

3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1996

『朝鮮王朝實錄』(成宗 11년 8월 甲子)의 ‘石珍珠葵花簪一根’을 인용하면서 해바라기로 보았으나 成宗 11년(1480)은 콜럼버스가 해바라기를 유럽으로 가져온 1492년보다 앞서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될 수가 없다.

4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1996

『朝鮮王朝實錄』(光海君 4년 11월 辛卯)의 ‘白淺子菊花樣 此則我國所謂葵花盞也’는 ‘국화 문양이 박힌 白淺子は 바로 우리 나라에서 葵花盞이라한다.’로 볼 수 있는데

있다고도 하였지만 해바라기로 해석하는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⁴¹⁾

4. 4. 『春秋左傳』의 葵는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 또는 닥풀.

『春秋左氏傳』은 孔子(기원전 551~479)의 『春秋』(기원전 479)를 재해석한 것으로 춘추시대 좌구명(左丘明)의 저서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鮑莊子之智 不如葵 葵猶能衛其足’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는 ‘포장자(鮑莊子)의 지혜는 닥풀(아욱)보다 못하다. 닥풀은 능히 자신의 다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로 번역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전에서는 닥풀(아욱)이 아닌 해바라기로 이해하고 있다.⁴²⁾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춘추시대에는 동양에 해바라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葵(葵)는 닥풀 또는 아욱을 지칭하는 것이다. 유희(柳僖, 1773~1837)는 닥풀을 설명하는데 『左傳』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어⁴³⁾ 『左傳』의 葵는 닥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나라 백과사전인 『淵鑑類函』(1710)에서도 아욱(葵)을 설명하는 조문에 『春秋左傳』의 문장을 인용하였다.⁴⁴⁾ 그리고 보통 葵(葵)라 하면 보통 아욱을 지칭한다⁴⁵⁾고 『物名考』(1830)에서 강조하고 있어 『左傳』의 葵는 아욱 또는 닥풀을 의

접시꽃의 모양은 국화와 비슷하지만 해바라기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葵花蠶은 해바라기가 아닌 접시꽃으로 보아야 한다.

41) 신기철,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1975.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館, 1977. 1988.

『대국어사전』, 현문사, 1985.

『새 國語辭典』, 동아출판사, 1989

金星出版社辭書部, 『뉴에이스 國語辭典』, 金星教科書株式會社, 1989.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1993.

『21세기 새국어사전』, 동화사, 1998.

『참국어사전』, 두산동아, 2001.

42)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1982.

43) 柳僖, 『物名考』, 「黃蜀葵」, 非蜀葵之黃者也 大莖大葉如梧 初生大花如椀 未開 朝東暮西傾之. 일일화. 日日花 側金盞 衛足葵. 左傳所謂葵能衛足者 多以向日解之 然恐指露葵能承露 以自漑其根者也.

44) 張英, 『淵鑑類函』, 「葵」, 左傳仲尼曰 鮑莊子之智 不如葵 葵猶能衛其足.

45) 柳僖, 『物名考』, 「露葵」, 文字單稱葵者 多指此葵 아욱. 滑菜 陽草 同.

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5. 葵心, 葵傾은 해바라기가 아닌 닥풀을 지칭한다.

일부 사전⁴⁶⁾에서 규심(葵心), 규경(葵傾)을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기울어진다는 뜻으로 군왕이나 윗사람의 덕을 높이는 뜻으로 쓰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규경(葵傾)을 설명하는데 공통적으로 ‘若葵藿之傾葉 太陽雖不爲之回光 而向之者誠也’의 예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규곽(葵藿)은 닥풀과 콩잎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경(葵傾)과 규심(葵心)은 해바라기가 아닌 닥풀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편 葵懇(접시꽃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접시꽃을 지칭하는 것이다. 『大東韻府群玉』(1798)에서 葵懇을 설명하면서 葵花(접시꽃)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5. 해바라기의 쓰임

최근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많아 시력이나 안색을 좋게하고 손톱을 곱게 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는 활발한 편이 아니다.

기름이 45% 함유한 해바라기는 식용유의 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으며, 해바라기 껍묵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가능하며, 줄기 잎 꽃받침 등은 사료와 펄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화기간이 길어 고정 양봉의 밀원(蜜源)식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또한 꽃에서 노란색의 염료를 얻을 수 있다. 해바라기기름은 연고의 기초제, 약용비누원료, 도료원료 등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46) 弘字出版社編輯部, 『國漢最新大字源』, 弘字出版社, 1968.

韓英社編輯部, 『新字典』, 學英社, 1973.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79. 1997.

동아출판사편집국, 『東亞 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82.

千龍淑, 『活用玉篇』, 現代中國學術研究, 1999.

47)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葵懇」, 每瀉赤心傾白日 欲輸凌懇啓朱唇 (魚咸從葵花)

III. 결론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해바라기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최초의 그림기록은 현존하는 문헌중 『字典釋要』(1909)로 보아야 한다.

둘째,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向日花, 向日葵, 해바라기 등의 단어가 닥풀의 異名으로 사용되었고, 해바라기가 도입됨에 따라 해바라기의 의미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바라기의 語源은 닥풀의 異名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접시꽃(蜀葵花)을 해바라기로 잘못 인식한 최초의 문헌은 『蒙諭』(1810)로 보아야 한다.

넷째, 『朝鮮語辭典』(1920)에서 시작된 해바라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현재 대부분의 사전류에서 葵藿, 葵花, 葵心, 葵傾, 葵, 蜀葵花 등을 해바라기로 잘못 보고 있다. 이는 古書를 잘못 번역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IV.참고문헌

*** 古書類

孔子編, 『詩經』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正祖 22년(1798)

金守溫(1409~1481), 『拭疣集』, (미상)

唐愼微, 『經史證類備急本草』, (1108)

徐命應, 『本史』, 正祖 11년(1787)

徐有桀, 『林園經濟志』, 純祖 27년(1827)

安宗洙, 『農政新篇』, 博文社, 光武 9年(1905)

劉灝, 『佩文齋廣羣芳譜』, (1708)

俞孝通·盧仲禮·朴允德 撰, 『鄉藥集成方』, 世宗 15년(1433)

俞孝通·盧仲禮·朴允德 撰, 『鄉藥採取月令』, 世宗 13년(1431)

柳僖, 『物名考』, 純祖 30년(1830)

李嘉煥 李載威, 『物譜』, 純祖 2년(1802)

- 李德懋, 『靑莊館全書』, 正祖 19년(1795)
 李時珍, 『本草綱目』, (1590)
 張英, 『淵鑑類函』, (1710)
 張志淵, 『農學新書』, 皇城新聞社, 純宗 3년(1909)
 張志淵, 『菜蔬栽培全書』, 皇城新聞社, 純宗 3년(1909)
 張混, 『蒙諭』, 純祖 15년(1810)
 저자미상, 『廣才物譜』
 저자미상, 『良方金丹』
 鄭允容, 『字類註釋』, 哲宗 7年(1856)
 丁學祥, 『詩名多識』, 哲宗 元年(1850)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1920)
 趙在三, 『松南雜識』, 哲宗 6년(1855)
 池錫永, 『字典釋要』, 亞細亞文化社, 純宗 3년(1909)
 崔岙, 『簡易集』, 仁祖 9년(1631)
 河弘度, 『謙齋集』, 英祖 22년(1746)
 許浚, 『東醫寶鑑』, 光海君 5년(1613)

*** 新書類 및 論文類

- 賈傳棠, 『辭源』, 中州古籍出版社, 1993
 金鍾德, 「아욱(葵菜),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에 대한 문헌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199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1996
 문세영,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1949
 李秉根, 「해바라기(向日花)의 語彙史」, 『冠嶽語文研究』, 22輯,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최광열, 『꽃사전』, 서문당, 1993.
 韓振乾, 『漢朝植物名稱詞典』, 遼寧人民出版社, 沈陽, 1982